

권력의 기원에 대한 탐색과 주체의 불안

-이청준 소설 「소문의 벽」을 중심으로-*

조소명**

-차 례-

1. 들어가며
2. 사회적 현실을 규제하는 환상
3. 강요된 선택으로서의 사회계약
4. 권력의 불법적 기원과 주체의 불안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7091603)

** 성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국문초록]

이 글은 이청준의 「소문의 벽」(1971)에 나타난 권력의 개인 호명의 방식과 이에 대한 주체의 응전 양상을 검토한 것이다. 표준적인 독해에서 전깃불과 신문관과 같은 권력의 담지자들은 주인공 박준으로 하여금 특정 이념을 선택하도록 강제하거나 정직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억압을 대표하며, 진술 공포증은 바로 그러한 억압의 결과로서 발현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이 글은 소설에서 권력의 호명이 그가 원하는 바를 강압적으로 명령하는 단선적인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먼저 주목한다. 그것은 타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주체에게 분명치 않은 불투명한 부름으로, 이에 직면한 박준은 처음에는 타자의 욕망에 부합할 답변을 추론하여 제시하지만 실패를 거듭한다. 이는 자신을 호명한 권력의 정당성과 적법성 자체에 대한 히스테리적 의심으로 이어진다. 여타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주체는 ‘큰 타자가 원하는 바가 이것 혹은 저것이다’와 같은 방식으로 환상을 구축하여 그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위한 기준으로 삼으려 하지만, 박준의 경우 그의 의심을 극단까지 밀어붙인다. 그는 작중 소설 속에서 권력과 그것의 권위가 궁극적으로 불법적인 폭력과 강탈에 기원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또한 ‘한국적 사회계약’의 억압된 장면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권력의 호명에 응전한다. 결과적으로, 이 글은 이청준이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자장 내에서 주체가 호명되던 1960~70년대에 그러한 권력의 힘이 불법적인 기원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권력의 빈자리를 사유하고자 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주제어 : 권력의 기원, 불안, 호명, 히스테리, 환상, 사회계약, 강요된 선택

1. 들어가며

이청준의 소설에는 어떤 병리적 증상에 시달리는 인물이 등장하여 그 원인을 추적해나가는 설정이 빈번하게 발견되는바, 이와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불행한 가족 관계, 한국 전쟁 중에 겪은 이데올로기 대립, 4·19와 5·16의 연이은 경험 등 그 원인은 다양하나, 요약하자면 현실과의 갈등 혹은 현실의 억압에서 생겨난 정신적 외상이 ‘배앓이’ ‘광기’ ‘허기’와 같은 다양한 증상으로 발현된다는 것이 통상적인 논지라 할 수 있다.¹⁾ 이처럼 작중인물의 병리를 개인적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가해진 억압과 연관 지음으로써, 이청준의 소설은 억압적인 현실에 대한 집요한 탐구를 통해 그것을 비판하고 반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받아 왔다.²⁾

“이청준의 억압은 사회와 개인, 집단과 개인의 관계에서 전자가 후자에 가하는 억압으로 나타나는데, 그 양상은 폭력적이며 개인은 정신적 외상을 입고 고통받는다. 그 억압의 전형적인 예를 우리는 「소문의 벽」의 박준이 유년시절에 겪은 전깃불 체험에서 찾아볼 수 있다”³⁾거나, “「소문의 벽」에서 박준이 6·25 때 당해야 했던 전깃불의 위협 같은 게 억압하는 현실의 단적인 상징이 된다”⁴⁾는 지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글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을 「소문의 벽」 역시 위에서 언급한 연구 흐름과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어왔다. 이 작품은 인물의 병리적 증상, 진술 불가능의 문제, 격자소설 형식 등 이청준의 초기소설에서 나타나

1) 이러한 논지는 많은 연구에서 발견된다. 대표적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이재선, 『현대한국소설사 1945-1990』, 민음사, 1994, 208면.

이승준, 「이청준 소설에 대한 정신분석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2)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397면.

김 현, 「이청준에 대한 세 편의 글 - 자기 반성의 뜻」, 『문학과 유토피아』, 문학과학지성사, 1993, 239면.

3) 성민엽, 「겹의 삶, 겹의 문학-후기 이청준에 대하여」, 권오룡 엮음,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학지성사, 1999, 149면.

4) 우찬제, 「자유의 질서, 말의 꿈, 반성적 탐색-이청준의 소설론」, 권오룡 엮음,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학지성사, 1999, 202면.

는 요소들을 집약하면서 “억압적인 사회 속에서 소설(가)의 존재방식에 대한 자기성찰”이라는 핵심 토픽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1960년대 이청준 문학세계를 대표하는 소설”로 손꼽히기도 한다.⁵⁾ 이와 더불어 1960~70년대 정치사회적 배경 속에서 발생한 군사 정권의 억압, 가령 임의로 계엄령을 선포하여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고문과 폭력을 자행한다거나, 동백림 사건과 같이 간첩을 조작한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논의가 축적되면서,⁶⁾ 「소문의 벽」은 권력의 억압에 대한 탐구를 심도 있게 보여준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물론, 전깃불을 비춘 채로 상대방에게 어느 편인지를 묻는 ‘전깃불’ 사건이나, 국가 반역 혐의를 걸어 불시에 체포한 뒤 생애 전체를 진술할 것을 요구하는 ‘신문관’의 존재에서, 한국전쟁기부터 군부 독재 시기까지 국가 권력에 의해 행사된 폭력을 읽어내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작품에서 권력의 실체가 상당히 모호하게, 마치 유령적 존재자인 것처럼 그려지고 있다는 점을 통해 기존 연구 방향과는 다르게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작품에서 권력의 담지자는 전깃불 뒤에, 혹은 ‘소문의 벽’ 뒤에 가려져 정체를 확인할 수 없거나 환영 속에서 등장하며, 나아가 상대에게 ‘나는 당신에게서 이러저러한 것을 원한다’와 같은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던지는 존재로 처리되어 있다. 미리 언급하자면, 이것은 타자가 주체를 부르는데, 무엇을 원하는지 알리지 않은 채로 부르는 ‘텅 빈 호명’(empty interpellation)⁷⁾과 연결된다. 이러한 부름에 직면한 주체는

5) 김영찬, 「1960년대 이청준 소설에서 ‘진실’의 존재론 - 「가수(假睡)」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50호, 2013, 347면.

6) 이수형, 「1960~70년대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권력의 중층성 : 주권권력, 규율권력, 생명권력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64집, 민족문학사연구소, 2017.; 김성경, 「반역의 상상력: 이청준의 『꺼지지 않는 자서전』의 저항성 연구」, 『상허학보』 제47집, 2016.

7) ‘텅 빈 호명’ 혹은 ‘동일화 없는 호명’은 슬라보예 지젝이 루이 알튀세르의 호명 작용을 비판하면서 도출한 개념이다. 알튀세르가 말한 ‘이데올로기적 호명’에서 개인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호명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주체로 구성되는바, 이때 호명 작용은 실패하지 않으며 그 수신자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하지만 지젝은

어떻게든 타자의 의도와 심층을 명시적으로 파악하려는 불가능한 시도 속에서 일종의 환상을 형성한다.⁸⁾ 격자 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소문의 벽」은,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의 교호를 통해 사회적 현실이 단순히 권력의 억압만이 아니라 그것의 불투명한 호명 방식에 의해 형성되는 환상으로 규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그러한 사회적 현실에 맞선 주체의 대응 양상이다. 우선, 주인공 박준은 상징적 질서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정체성에 대해 ‘왜 나는 당신이 나라고 말하는 그것인가?’ ‘내가 왜 그 이름인가?’ ‘나는 그것이 아니다’와 같은 히스테리적 의심을 제기한다. 그럼으로써 자신을 호명한 권력의 권위를 의문에 부친다.⁹⁾ 나아가 이러한 의심을 극단으로 밀어붙여 권력의 담지자에게 숨겨져 있는 것으로 가정되는 어떤 ‘비밀’에 대해 그 스스로 폭로하도록 만들고, 그로써 권력과 그것의 권위가 불법적인 폭력과 강탈에 기원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결과적으로, 이 글은 이청준이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자장 내에서 주체가 호명되던 1960~70년대에 그러한 권력의 힘이 불법적인 기원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권력의 빈자리를 사유하고자 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프란츠 카프카의 『심판』을 예로 들며 호명의 실패를 설명한다. 요제프 K가 무엇 때문에 법정에 소환되었는지 모른 채로 체포를 당할 때, 그는 “자신이 무엇으로 호명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그 어떤 동일화의, 자기인지의 지점도 제공받지 못한 채 호명당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지책에 따르면 “이러한 ‘텅 빈’ 호명은, 타자가 실제로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명백한 표시도 결여된 채로 우리가 호명되고 호출되었다는 이 불분명한 관념은 강렬한 죄책감을 발생시킨다”. (슬라보예 지책, 이성민 옮김,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 도서출판 b, 2007, 349면 참조.)

- 8) ‘환상’은 기본적으로 불가해한 타자의 욕망에 대한 상상적이고 추론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다. (슬라보예 지책, 이수련 옮김,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새물결, 2013, 184-185면.)
- 9) 히스테리(hysteria)는 자신에게 부과된 위임을 의심한다는 측면에서 호명 작용의 실패를 드러내며, 그러한 것으로서 주인 혹은 권력의 권위에 대한 의문을 표시한다. 이에 관해서는 슬라보예 지책, 위의 책, 151면 참조.

2. 사회적 현실을 규제하는 환상

「소문의 벽」은 잡지사 편집장으로서 “도대체 작자들이 무슨 이유로 이처럼 한결같이 글을 쓰지 않으려고들 하는가”¹⁰⁾라는 의문을 품고 있던 서술자 ‘나’가, 박준과의 우연한 만남 이후 진술 공포에 시달리며 미친 척하는 그의 병리적 증상의 원인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그 과정에서 박준이 정신병원에 자발적으로 입원했다가 탈출했다는 것, 두 편의 소설을 각기 다른 잡지사 에 투고했다가 게재를 거부당하고 연재가 중단되었다는 것, 한국 전쟁 당시에 겪었던 “전깃불에 대한 공포”를 지금까지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는 것, 그러한 공포증이 정신병원의 김 박사의 강압적인 치료법에 의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 등을 ‘나’는 점차 알게 된다. 그리고 원인 추적의 과정 끝에, 박준만이 아니라 “진술이라는 것을 경험해본 사람들” “누구나 자신의 전깃불을 가지고 있게 마련”이며, 그 만연해 있는 전깃불의 공포로 인해 “원고들이 잘 견디지 않고 있”다는 최종적인 결론에 다다른다. 그리하여 이 작품은 병리적 증상의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한 개인에게 가해진 다양한 억압의 양상이 드러나고 그것을 “누구나”의 체험으로 보편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권력의 억압을 비판하고 반성한다는 전형적인 독법으로 독자를 유도한다.

그러나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면, ‘전깃불’ 사건을 예외로 하고 소설에서 어떤 권력의 담지자가 직접적으로 억압을 행사하는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작품의 초점은 권력이 이처럼 직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지 않고 정체를 감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개인이 그것으로부터 언제나 감시당하고 있다는 환상을 구축하는 방식에 놓여 있는 듯하다. 핵심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권력은 어떻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서 인구를 통제하는가? 그리고 개인은 어떤

10) 이청준, 「소문의 벽」, 『소문의 벽』(전집4권), 문학과지성사, 2011, 135면. 이하, 주요 인용에 면수만 표기함.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권력이 항상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환상을 구축하는가? 이때, 권력과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소문”이라는 매개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박준의 두 소설이 ‘나’의 잡지사와 R지로부터 “퇴장”당하는 과정에서 소문이 기능하는 방식에 주목할 수 있다. 박준의 <괴상한 버릇>을 두고 ‘나’와 안 형이 논쟁하는 장면에서, 안 형은 잡지사 간에 “작품이나 작가에겐 동의를 하면서도, 말썽이 두려워 발표를 꺼리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자신들의 기호나 편집을 소문이나 말썽이 두려워서인 것처럼 공연한 엄살로 필자를 협박하려 드는” “보다 악질적인 경우”도 있다고 언급한다. 지식 담론장에 권력의 검열과 탄압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으며, 문학 주체가 소문에 의존하여 혹은 그것을 악용하여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소문의 명시적인 내용은 소설 속에 나타나 있지 않다. 하지만 그 소문 속에서 문학 주체는 공식적으로 말해지지 않은 권력의 암묵적인 메시지, 가령 ‘법은 나를 실제로 구속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유죄로 판결할 수 있다. 내가 원하지만 하면 너를 파괴할 수 있다’와 같은 외설적이고 잠재적인 위협을 가하는 메시지를 수신받고 있는 듯하다.¹¹⁾

물론 사실과의 부합성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출처조차 분명치 않지만,¹²⁾ 그 익명의 소문은 권력과 주체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면서 필자나

11) 슬라보예 지젝, 김서영 옮김, 『시차적 관점』, 마티, 2014, 659면 참조. 지젝은 국가 권력의 작동이 언제나 공식적인 법과 그것의 초차아적 이면의 보충으로 이루어진다고 논한다. 그에 따르면, 공식적인 법의 층위에서, 국가는 신민들(subjects)의 이해 관심을 대표하고 책임지며 그것의 통제를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공식적인 메시지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법은 실제로 나를 구속하지 못하며, 나는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당신에게 행할 수 있다’는 무조건적인 권력 행사의 외설적인 메시지에 의해 보충되어야 한다.

12) 적어도 작품 내에서는 그렇다. 1960~70년대 정치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면, 잡지사를 떠도는 소문이 단지 “뜨소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가해진 탄압이 그것을 지켜본 다른 이들 사이에 불러일으켰을 공포와 두려움이다. 그것은 누군가 주도면밀하게 ‘나’를 감시하면서 정보를 모으고 있으며, 그리하여 ‘나’ 또한 언제든지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상상된’ 공포를 창출하기에 충분하다.

편집자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일어날 수 있는 “공연한 말썽”과 “엉뚱한 봉변”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준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수신받은 그들은 저마다 권력의 응시에 비추어 원고를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잠재적인 위협이 실현되기 이전에 자체 검열을 수행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비가시적인 권력은, 직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권위도 지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재하면서 개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꿰뚫어 보는 신적 속성을 부여받게 된다.

물론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편재하는 권력의 응시가 소문의 메커니즘을 통해 구축된 “환상”이라는 점이다. 권력이 각자의 방안에 있는 개인을 일일이 감시할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단순하지만 자명한 이유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주체의 상상적 산물에 다름 아닌 이 응시는, 저마다 거기에 맞추어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참조점으로서 실제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달리 말해, 그것은 허구적이지만 사회적 현실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는 작중에 내부 이야기로 삽입되어 있는 박준의 소설 <별거벗은 사장님>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 스토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어떤 기업체의 통근차를 운전하던 주인공은 어느 날 사장 차 운전수로 발탁되자 망연자실해한다. 사장에게는 “별스럽게 운전수를 자주 갈아치우는 버릇이 있었”고, 주인공의 전임자들 모두 “몰라도 좋을 일을 알아버린 죄”로 회사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쫓겨나게 된 구실을 만들어 주지 않으려 온갖 주의를 기울”이지만, 전임자들이 쫓겨난 “이유를 알 수 없으니 조심을 해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방법을 알 수 없”던 그는, 어느 밤에 사장과 함께 간 산골짜기 별장에서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된다.

“오늘 밤 일은 절대로 알은척하지 말게. 본 것도 못 본 체 들은 것도 못 들은 체 잊어버리란 말야. 그러구 내일 아침은 오늘 밤 우리가 여길 왔던 사실조차 없었던 걸로 하구.”

사장은 차를 타고 가며 그런 당부를 한다. 주인공은 비로소 올 것이 왔구나 싶어 찢끔 사장의 눈치를 살피며 순종을 맹세한다. 이윽고 사장은 골짜기의 어떤 집 앞에다 차를 세우게 한 다음 운전수를 이상한 창고 같은 방 속에 감금하고는 혼자서 그 집 안으로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운전수는 그 창고 같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이상한 광경을 목도한다. 창문 하나 없이 사방이 밀폐되어 있는 방 안은 바깥일을 살필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되어 있는 영락없는 감방이다. 방 안에는 벌써 자기 말고도 먼저 와 있는 운전사 차림의 사내들이 여남이나 한테 몰려앉아 있다. 그리고 주인공은 비로소 그 사내들로부터 방금 그의 사장이 사라져 들어간 비밀의 집에 관해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된다. (203-204면)

사내들에게서 들은 그 “놀라운 이야기”란 “한번 이 집 문을 들어선 사람은 한결같이 나체가 되어 술과 여자와 춤을 원껏 즐기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전임자들과 같이 “보지 않고 듣지 않을 일들을 보고 들어버린 허물”을 지니게 된 주인공은, “잘못 입을 뺏겼다가는 모가지로 잘리게 되리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어떻게든 사장의 금지명령을 따르고자 분투한다. 하지만 사장의 명령을 지키려 할수록 “아무래도 누구에게나 그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고는 배겨낼 수가 없”게 된다. 자신에게 부과된 법을 따르려 할수록 이에 비례하여 위반에의 욕망 또한 강화되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그는 더욱 강박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려 애쓰다가 결국 “신경과민 증세”를 보인다.

이런 방식으로 초자아적 악순환에 걸려든 그는, 모든 곳에서 사장의 감시하는 눈을 의식하게 된다. “사장의 정보통”이 있을지 모른다고 동료들을 의심하는가 하면, “회사에서뿐 아니라 집안에 있는 마누라까지 의심스러워진다”.

한마디라도 입을 잘못 열었다간 금세 누군가에 의해 그 소리가 사장님의 귀로 들어갈 것이다. 회사를 쫓겨나갔다간 정말 큰 일이다. 회사를 쫓겨나지 않으려면 누구에게나 입을 꼭 다물고 지내는 수밖에 없다. 주인공은 끝끝내 입을 다물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너무 하고 싶은 말을 참다 보니 종당엔 신경과민 증세가 생기고 만다. 누군가가 꼭 자신의 언동 하나하나를 살피고 있는 것 같다.

언제나 감시를 받고 있는 심경이다. 회사 안에서는 벌써부터 자기가 곧 쫓겨나게 되리라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고 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소문에 묻혀 보이지도 않는 눈들이, 귀들이 사방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마누라까지 의심스러워진다. (206면)

“신경과민”에 시달리던 주인공은 사장의 편재하는 응시에 대한 환상을 품게 된다. 사장에게 신적 속성—편재성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눈—을 부여하고, 어디서든 그의 응시 속에서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바라보기에 이른 것이다. 달리 말해, 그의 현실은 환상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인용에서 “소문에 묻혀 보이지도 않는 눈들이, 귀들이 사방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언급은, 주체가 어떻게 소문을 통해 편재하는 응시의 환상을 창출해내는지를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요약해 주고 있다.

또한 지적해야 하는 것은, <벌거벗은 사장님> 내에서도 권력(사장)의 정체는 주인공에게 접근 불가능한 것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주인공은 산골짜기의 “비밀의 집”에서 벌어지는 “해피한 일”에 대해 단지 다른 운전수들로부터 전해 들을 뿐이다. 운전수들은 창문 하나 없는 방에 갇혀 있으므로 실제로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곳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래서 다른 운전수가 주인공에게 들려준 “놀라운 이야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곳에는 평범한 인간들로서 향유할 수 없는 온갖 것들이 펼쳐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넓은 목욕 풀, 술과 춤을 즐길 수 있는 밴드와 홀, 도박장과 비밀 영화관, 그리고 나체 파티 등등. 정말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운전사들이 자신이 누리지 못하는 욕망을 권력의 형상에 투사한 것인지, 그 여부는 불확실한 채로 남아 있다.

중요한 것은 운전사들의 밀폐된 방 안에서 떠도는 소문이 권력의 신비를 부추킨다는 점이다. 소설의 내용에 따르면, 사장은 회사와 집안에서 “점잖은 어른”으로 평판이 나 있다. 그런 사장이 평범한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 은밀하게 외설적인 향유를 누리고 있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는, 그의 카리스마에 손상을 입히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강화한다. 그만큼 그의 힘이 강력하며 그가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권력에 대한 환상을 재생산하는 데 이바지한다.

여기서 다음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편재하는 응시에 대한 주인공 윤전수의 환상은 단지 한 개인이 품고 있는 병적인 공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문의 벽」은 내부 이야기(<벌거벗은 사장님>)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외부 이야기에서도 필자와 잡지사 편집자들이 동일한 환상에 의해 규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이청준은 이른바 “관옵티콘 사회”, 즉 “(잠재적으로) ‘환상 관찰되고 있으며’ 모든 곳에 편재하는 권력의 시선으로부터 달아나 숨을 장소는 어디에도 없”는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듯하다.¹³⁾ 거듭 강조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가 권력을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가정하는 주체의 환상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어지는 절들에서 다루겠지만 박준의 소설은 바로 이와 같은 권력에 대한 환상을 가로지르는 것을 겨냥한다.

둘째, 소문은 권력의 정체를 확인할 수 없는 곳에서 번성하여 그 정체에 대한 온갖 상상이 흘러넘치게 만들며, 권력의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권력과 주체 사이의 관계를 매개한다. 이러한 소문의 기능과 관련하여 박준은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간추리고 있다.

—당신은 아까부터 자꾸 전깃불의 공포라는 말을 써왔는데, 그리고 당신은 지금도 그 전깃불의 간섭을 받고 있다고 말했는데, 당신의 소설작업과 관련하여 지금 당신은 어떤 곳에서 그것을 느끼고 있는지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없는가.

—말해줄 수 있다. 그것은 소문 속에 있다.

—소문 속에서라면, 실제로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말인가.

13) 슬라보예 지젝, 한보희 옮김, 『전체주의가 어쨌다구?』, 새물결, 2008, 382면.

—실제로도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정체를 밝히지 않기 위해 소문의 옷을 입고 있는 것뿐일 것이다. 그래야 그것은 우리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복수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게다가 사람들은 원래 그런 소문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늘 두꺼운 소문의 벽을 쌓아주고 있는 것이다. (250면)

인용에서 박준은 “사람들은 원래 그런 소문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다. 왜 그러한가? 왜냐하면 그 소문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지만 잠재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권력이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 추측하고, 자신의 행동을 위한 어떤 기준이나 지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것에 기대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도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잡지사에서 소문에 의존하여 혹은 그것을 악용하여 필자의 원고를 자체 검열하는 사례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렇다면 소문 속에서 진술을 방해받고 있는 박준은 이러한 교착 상태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3장에서 다룰 것처럼, 그는 자기에게 부과되는 상징적 위임에 대해 히스테리적 의심을 제기한다.

3. 강요된 선택으로서의 사회계약

2장에서 이 글은 필자나 편집자와 같은 문학 주체가 소문 속에서 특정한 행동 지침을 발견하고, (가정된) 권력의 편재하는 응시에 비추어 자기를 검열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왜 소문이라는 불투명한 매체, 즉 출처도 명확하지 않고 근거도 결여하고 있는 매체에 의존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는 권력이 좀처럼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며, 그것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공언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준이 진술 공포에 시달리며 미친 척하는 이유 또한 이 문제와 관련이 깊어 보인다.

이 지점에서 유명한 ‘전깃불’ 사건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박준의 미발표 소설 원고에서, G는 신문관의 환영에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전깃

불과 관련한 자신의 여러 경험을 진술한다. 첫 번째 경험은 한국 전쟁 중 벌어진 사건에 관한 것이다. G는 먼저 자신이 살던 마을에서 지방공비와 경찰대에 의해 차례로 학살이 자행된 이후, 더 이상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질 분간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자신과 어머니가 한밤중에 겪은 일을 언급한다. G의 집에 전깃불빛과 더불어 어떤 괴한이 들이닥쳐 “어느 편이냐” “누구 편이냐”고 “어머니를 사정없이 추궁”했고, 강렬한 불빛 때문에 그의 정체를 파악할 수 없었던 G와 어머니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전깃불 공포 상황은 전깃불 배후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억압적 권력이 진술자를 주체로 호명하는 상황이다. 진술자는 전깃불 공포의 배후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에 의해서 주체로 형성된다”는 지적에서도 참조하고 있는 것처럼,¹⁴⁾ ‘전깃불’ 장면은 알튀세르가 말한 호명 작용을 연상케 한다. 여기서 전깃불을 든 괴한은 특정한 한 개인이라기보다 이데올로기로 호명하는 권력의 대리자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그의 호명은 다소 기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상대방을 이미 두 편 중 한쪽 편인 것처럼 다룬다. 호명 작용의 결과물로서 생산되어야 할 그것은 사전에 전제되어 있다. 둘째, 그의 호명은 동일화할 지점을 제공하지 않는다. G와 어머니는 목숨이 걸려 있는 상황이므로 그의 편에 동일화할, 괴한이 원하는 답변을 알기만 하면 그렇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괴한은 자기 정체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제공하지 않은 채로 “아주머니는 누구 편이냐”고 물을 뿐이다.

이 기이한 호명을 두고 ‘한국적 사회계약’이라 부를 수도 있겠다.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한 개인은 사회로 하여금 자신을 보호하고 특정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공동체의 사회적 위임에 복종하는 데 “자유롭게” 동의한다. 물론 한 개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계약 및 동의의 절차는 허구에 불과하다. 단지 영토 내에 있었다는 이유로

14) 송명진, 「이창준 소설의 이야기 권력 연구」, 『시학과 언어학』 제4집, 시학과언어학회, 2002, 195면.

마치 계약을 맺은 것처럼 가정될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동체 혹은 사회는 그가 결코 계약 절차를 밟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가 자유롭게 동의를 한 것처럼, 그리하여 계약에 구속되어 있고 법에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개개인을 다룬다. 이는 라캉이 말한 강요된 선택의 구조와 유사하다. 공동체에 대한 선택, 즉 사회계약은 자유로운 선택의 외관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경우에만 선택의 자유를 유지할 수 있는 역설적인 선택이다. 만일 내가 공동체의 ‘타자’를 선택한다면, 곧바로 그 선택의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¹⁵⁾

G와 어머니가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다. ‘전깃불’ 사건은 마치 권력의 대리자가 불시에 방문하여 사회계약을 체결하는 현장을 그려놓은 듯하다. 그 대리자는 G와 어머니를 마치 이미 어느 편을 자유롭게 선택한 존재인 것처럼 다루면서,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자신과 동일한 이념을 선택했는지—추궁한다. 그리고 그런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농사나 지어 먹는 사람이다, 누구를 따라간 일도 없고 누구의 편이 된 일도 없다, 무식한 죄로 그러는 것이니 제발 허물을 삼지 말아달라…… 이 아주머니 정말 반동이구먼. 누구의 편이 아니라니 그런 반동적인 사상은 용서할 수 없다. 전깃불 뒤에서 비로소 그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겨우 전깃불의 정체가 밝혀진 것이지요. (231면)

G와 어머니는 괴한이 사용한 “반동”이라는 단어에서 단서를 얻어 겨우 위기를 모면하지만, 이 전깃불의 공포는 박준의 기억 속에 또렷하게 각인된다. 단지 특정 이데올로기를 강요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가 경험한 것은 그 이상인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러하다.

첫째, 어머니가 괴한의 정체를 알아내기 이전에, G와 어머니는 그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타자가 그를 호명하고 있긴 하지만 무엇을 원하는지(Che Vouï?) 어떠한 노력으로도 알아낼 수 없는 공포스러운 상황

15) Žižek, Slavoj, *Enjoy Your Symptom!*, Routledge, 2001, p. 86.

에 놓인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목숨을 보존할 수 있지만, 그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텅 빈 호명”의 계기, 즉 주체성의 불확실성 속에서 목숨을 건 선택을 해야 하는 계기를 겪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이 전짓불 사건을 그토록 트라우마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둘째, 인용에서 어머니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농사나 지어 먹는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괴한이 그것을 “반동적인 사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박준은 이 사건에서 주체의 진술이 주관적 의도와는 관계없이 양분된 이데올로기적 장(場) 내에서 기입되고 해석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가 자유롭게 동의하거나 계약을 맺은 적 없는, 그렇지만 강요된 선택에 의해 이미 그 속으로 편입되어 있는 바로 그 사회가 이처럼 양분된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 전짓불 사건은 ‘한국적 사회계약’의 근본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장면, 텅 빈 호명과 강요된 선택의 계기를 상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의 이야기는 다만, 그러나 나에게서는 이미 그 양심이라는 것이 나의 의지 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지켜질 수 없게 되고 있다는 것뿐이다. 전짓불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짓불이 어떤 식으로든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아니 나에게는 어떤 선택의 여지조차 없다. 그런 것은 알지도 못한 새에 나는 언제나 누군가의 편이 되어 있곤 하는 것이다. (249면)

인용에서 “나에게는 어떤 선택의 여지조차 없다. 그런 것은 알지도 못한 새에 나는 언제나 누군가의 편이 되어 있곤” 한다는 박준의 토로는 그가 전짓불 사건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현실에서 겪어온 절망을 정확하게 요약해주고 있다. 그의 절망은 소설을 투고하든, 어떤 진술이나 행동을 하든, 그것이 주어진 이데올로기적 틀 내에 기입되면서 전도된 의미를 부여받는다라는 점에 있다. 그것은 그의 주관적 의도와는 관계없이 “누군가의 편”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해석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괴상한 버릇>에 대한 안 형의 평가에 주목할 수 있다. 안 형은 이 소설을 “무의미한 한 개인의 내면적 비밀 쪽으로 독자의 관심을 끌고 감으로써 자기 시대의 요구를 배반했고, 그리하여

소재 해석과 작품 완성에 다 같이 실패하고 말았다”는 이유로 잡지에 게재하지 않는다. 소설에서 걸핏하면 가사 상태 속에서 휴식을 취하곤 하는 주인공의 병리적 증상이 그러한 “슬픈 습성을 택하도록 강요한 현실의 압박 요인”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했지만, 작가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시대의 요구를 배반”했다는 것이다. 요컨대, 안 형이 <괴상한 버릇>을 게재 보류한 까닭은 작품에 현실 비판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자기 시대의 요구”를 기준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안 형에게는 모든 문학 작품을 ‘현실 비판적인가/순응적인가’로 양분하려는 태도가 저변에 깔려 있다. 그리하여 그의 눈에 <괴상한 버릇>은 현실과의 연관성을 상실하고 개인의 음습한 내면의 탐사에 치우쳐 있으므로 시대적 요구를 “배반”한 작품이 된다. 박준이 말한 대로, 그의 소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의 편”이 되어 있는 것이다.

R지로부터 연재 중단 통보를 받은 <벌거벗은 사장님>도 마찬가지다. ‘나’의 평가에 따르면 <벌거벗은 사장님>은 “‘괴상한 버릇’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작품”으로, 안 형이 말한 “시대의 요구라든가 그 시대의 인간들의 권리나 의무의 양상 같은 것들이 더 강하게 암시되고 있는 듯”한 소설이다. 하지만 R지의 편집자는 권력의 위협이 두려운 나머지 연재를 중단하고 만다.

그런데 이 두 편의 작품들은 결국 양쪽 다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는 ‘시대양심’이라는 것에 바탕을 둔 편집자의 문학 이념과 어긋난다는 이유에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위 그 ‘말썽의 소문’을 두려워하는 용기 없는 편집자의 조심성(글썸, 안 형은 그것을 다만 박준의 입을 막아버리려는 험박일 뿐인지 모른다고 했지만)에 의해서.

<괴상한 버릇>은 안 형으로 대표되는 현실 비판 담론에 의해, <벌거벗은 사장님>은 R지로 대표되는 권력의 담론에 의해 빛을 보지 못하게 된 셈이다. 박준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작품이 자신의 손을 떠나 상징적 질서에 기입되는 순간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러한 담론들

에 흡수되어버린다는 것,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러한 담론들에 의해 “누벼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박준은 주관적 의도와 그에게 되돌아오는 현실적 결과들 사이의 간극, 다시 말해 주관적 의도가 사회-상징적 질서에 전도된 방식으로 기입되는 간극을 계속해서 경험한다. 이런 경험은 그를 히스테리적으로 만든다. 즉, 상징적 질서로부터 부여받은, 혹은 타자로부터 호명받은 상징적 위임에 대해 ‘왜 나는 당신이 나라고 말하는 그것인가’ ‘왜 나는 그 이름인가’와 같은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박준이라는 그의 이름부터가 그러하다.

언젠가 나는 그가 쓴 글 가운데서 우연히 그런 고백을 읽은 일이 있었다. 그것은 ‘나의 외자 이름에 대해서’라는 제목이 붙은 짧은 수필 형식의 글이었는데, 그 글 가운데서 박준은 대충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름을 매도하고 있었다. 나의 이름은 원래 朴灌¹이다. 하지만 나는 언제부턴가 나의 이름 석 자(사실 이름만 해서는 두 자뿐이지만)가 무척도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특히 나의 이름 맨 끝에 매달려 있는 ‘一’ 자가 그렇게 느껴졌다. 도대체 나라는 놈의 폰수로는 차가 성 밑에 灌 자 하나로도 이름이 충분하고 남을 텐데 무엇 때문에 거기다 또 一 자를 하나 더 붙여 달아놓았는지 모르겠다. (...) 결국 나는 그 일자를 떼어버리고 준 자 하나만으로 이름을 삼기로 작정했다. (146면)

가족 질서로부터 이름을 부여받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사회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그렇게 불리게 됨으로써 가족 관계 내에서 상징적 정체성을 떠맡고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물론 그 자신이 이러한 이름을 택하지도, 계약을 맺지도 않았지만 말이다. 그런데 인용에서 보듯 박준은 자신이 부여받은 이름 속에서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왜 내가 그 이름인가’와 같은 히스테리적 의문을 제기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앞서 언급한 <괴상한 버릇>을 검토할 수 있다. 주인공은 어릴 때부터 어른들로부터 꾸중을 들을 참이면 광 속 같은 데로 숨어 잠든 척, 죽은 척하는 버릇을 지니고 있었다.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던 그의 버릇은, 대학생이 될 때까지

지 계속 이어지면서 오히려 “하나의 진지한 휴식술로까지 발전”한다. 그런 가사 상태 속에서 “나는 정말로 죽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것처럼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으며, “그 이상 완전한 휴식의 방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주인공은 괴상한 버릇을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한 뒤에도 고치질 못하다가 결국 그 버릇에 고장이 생겨 어느 날 “영영 그 가사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 이처럼 밖에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마다 가사의 잠으로 휴식을 취하는 주인공의 행위는 단순히 수동적 회피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이 상징적 질서 내에서 부여받은 정체성, 즉 ‘아들’ ‘학생’ ‘남편’ ‘직장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과 저항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히스테리적인 의심, 그리고 정체성의 동요는 미친 척하는 그의 증상과도 관련이 깊다. 그는 자신이 미친 척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야 사람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때가 가장 편한 것 아닙니까. 미친 사람은 어떤 세상일로부터도 온통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책임을 추궁당할 일도 없고 협박을 당하며 쫓겨 다닐 일도 없지요. 정신병원보다 안전한 곳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244면)

박준이 광인을 연기하면서 정신병원에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간 까닭은, “세상일로부터 온통 자유”롭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괴상한 버릇>의 주인공이 가사의 잠에서 휴식을 취하려는 것과 같이, 수동적 회피로 오해되기 쉽다.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미친 척하는 그의 행위는 타자와의 관계망으로부터, 또한 자신이 강제로 계약을 맺은 사회적 질서로부터 철회하는 제스처로 볼 수 있다. 전깃불 사건으로부터 지금까지 박준은 자신의 진술이 타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고, 나아가 타자로부터 왜곡된 의미를 되돌려받을 수 있음을 경험해 왔다. 정력적으로 작품 활동을 해보았지만, 그의 작품들은 손쉽게 현실을 떠도는 담론들에 흡

수되어버렸다. 주어진 이데올로기적 틀 속에 누버졌다. 현실이 이러한 틀에 의해 묶여 있는 한, 박준이 그 속에서 동일화할 좌표란, 정체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박준은 모든 관계망으로부터 스스로 철회하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광기의 제스처에서 박준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것은 이와 같이 틀 지어져 행위의 좌표가 제약되어 있는 현실이 불법적인 폭력에 기원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행위의 좌표를 재정의하는 일이다. 이는 이미 살펴본 대로 전깃불 사건에서 ‘한국적 사회계약’의 억압된 이면을 극화함으로써 성취된 바 있지만, 나아가 신문관의 심문 장면을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4. 권력의 불법적 기원과 주체의 불안

박준이 집을 떠나기 전에 누이에게 맡기고 간 소설은 G의 신문관에 대한 환영을 다루고 있다. 모 청년운동단체 간부직원인 G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좌석버스에서 신문관의 환영에 빠져든다. 신문관은 “불온스런 음모의 피의자”로 G를 체포해 심문을 시작하는데, 특이하게도 “G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음모사건이 모의되고 있었으며, 그것과는 G가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추궁하지 않”은 채로, “다만 자신의 생애에 관해 그가 기억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진할 것을 요구”한다.

“신문관의 요구를 기피할 이유가 없었다. 진술한 진술이 자신의 혐의 유무를 정확하게 가려내줄 수 있다면 이야말로 자기 쪽에서 먼저 바라고 나서야 할 바”라고 자신 있어 하던 G는, 곧바로 신문관의 정체를 알 수 없고, 그런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불안해 한다. 그리고 “신문관의 정체를 알 수 없어 불안스런 위구심 속에 진술을 시작한” G는, 일관되게 전깃불과 관련된 경험들을 고백하기 시작한다. 징집 영장을 받지 않은 청년들을 찾기 위해 방문한 순경들의 전

깃불, 3장에서 다룬 한국 전쟁 당시의 무장괴한의 전깃불에 대해 진술하던 G는, “의심스런 눈치리로 유심히 G를 바라보는” 신문관의 태도에 공포감이 일기 시작한다.

그는 안타깝고 초조해진다. 자꾸만 신문관의 눈치가 보인다.

—이자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의 결백은 결국 이자에 의해 증명되게 되어 있는데, 작자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이야기란 도대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232면)

G의 이야기가 모두 그 전깃불 한 가지로 일관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정직한 진술이 될 수 없으며, 그것은 곧 G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위협 어린 충고를 한다. G는 더욱 겁을 집어먹는다. 신문관의 마음에 들도록 좀 더 정직한 진술거리를 기억해내려 머리를 쥐어뜯는다. 하지만 아직도 그는 신문관의 정체를 알고 있지 못하다는 불안 때문에 도저히 그 이상 정직한 진술거리를 생각해낼 수 없다…… (233면)

신문관의 정체와 그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불안해 하는 G의 상황은, 전깃불 사건에서 권력의 대리자로부터 추궁받던 상황과 같다. 그 대리자가 G와 어머니를 호명하면서도 명시적인 명령이 아니라 ‘누구 편이냐’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G와 어머니를 교착 상태에 빠뜨렸던 것처럼, 신문관 역시 G를 체포해놓고 어떤 혐의로 그를 붙잡았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이러한 “텅 빈 호명”에 직면한 G는 어떻게든 신문관에게 동일화함으로써, 즉 그의 정체를 알아내고 그가 원하는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공포를 해소하고자 한다. 하지만 G의 답변은 신문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 소설은 왜 이처럼 권력의 형상을 불투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인가. 왜 그들은 명시적인 명령을 내리고 강압적으로 그것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G 스스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추론하여 대답하도록 만드는 것인가. 그것은 2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권력이 더욱 쉽게 주체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텅 빈 호명” 속에

서 타자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없어 불안에 떠는 주체는, 명시적으로 자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행동 지침을 알려주는 특정 담론(소문, 이데올로기, 시대의 요구 등등)에 더욱 의존하게 마련이다. 그 담론 속에서 숨 막히는 불안과 공포로부터의 피난처를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문관이 G의 환영 속에 나타난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외부적 참조점 혹은 권위를 지닌 큰 타자의 형상에 가서 어떤 정답과 행동 지침을 찾도록 추동하는 초자아적 힘인 것이다.

하지만 G는 신문관이 “전짓불 한 가지로 일관”된 진술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식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전짓불로만 연결지어”진 진술을 이어간다. 그리고 그런 G에게 신문관은 마침내 “유죄” 판결을 선고한다.

“자 그럼, 이제부터 당신의 그 진술 태도와 관련하여 유죄심증의 이유를 말하십시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로 당신은 우리에게 체포당해 있다는 사실, 그것을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당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있을지 모를 우리에게 당신이 체포당했다는 사실—지금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출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체포하게 된 경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도 그것을 잘 모르고 있지만 우리 역시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 (235-236면)

사실 나는 처음부터 당신에게 어떤 음모가 있었으리라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당신에게 처음부터 음모 혐의를 걸어 진술을 요구한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문 방법이기 때문이었지요. (236면)

신문관은 첫 번째 유죄심증의 이유로 G가 체포당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려고 했다는 점을 든다. “우리”는 “당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며, 그 질서를 기준으로 당신을 체포했는지 모르는데, G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신문관의 선고는 “새로운 질서”에 의해 체포당했다는 것을 단순히 무반성적으로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G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다.

그리하여 신문관의 첫 번째 선고 내용은 마치 새로운 법이 비합리적이고 “초논리적 독단”으로 정초되는 폭력의 상황을 다루고 있는 듯하다. 아무런 혐의도 없는 G를 “새로운 질서”의 이름으로 체포하여 취조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신문관의 행위는, 기존에 확립된 질서를 강탈하여 새로운 법을 정초하고 신민들(subjects)에게 그것을 폭력적으로 부과하는 행위와 같다. 마치 전깃불 사건에서 권력의 대리자가 강요된 선택으로 사회계약을 체결했던 것처럼, 신문관은 “당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G를 체포하여 이 질서에 동의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이 선고 내용은 법, 혹은 법적 권력의 시초에 불법적 강탈이 있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¹⁶⁾

“두 번째 이유는 당신이 줄곧 우리의 정체에 대해 불요부당한 의문을 품고 있었던 점입니다. 당신은 진술을 하면서 자꾸만 우리의 정체를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밀은 영원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그것은 모르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것을 알아내고 싶어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당신은 그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늘 진술을 망설이고 정직한 진술을 하지 못했습니다.” (236면)

신문관은 두 번째 유죄심증 이유로 “우리의 정체에” “의문을 품고” 그것을 “알아내고자 했다”는 점을 든다. 신문관은 어쩌서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비밀에 부치려 하는가. 그리고 어쩌서 그것을 “알아내고 싶어 하는 것은 죄악”인가. “새로운 질서”를 폭력적으로 정초하여 신민들을 체포한 그의 정체는 사실상 강탈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민들이 그러한 강탈의 진실, 불법적 폭력으로 새로운 법을 세웠다는 진실을 간과하는 한에서만, 그의 권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신문관의 선고 내용은 오히려 그 자신의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신문관과 G의 비대칭적 관계는 오히려 역전된다. 박준의

16) 슬라보예 지젝, 박정수 옮김,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인간사랑, 2004, 421면.

소설은 G에 대한 신문관의 심문을 가장하여 오히려 신문관을 심판대에 올리고 있다. 그러면서 그가 본래적으로 텅 비어 있는 권력의 장소를 불법적으로 점유한 강탈자라는 사실을 그 스스로 고백하도록 만든다. 광기를 연기하면서 환상과 이데올로기로 구조화되어 있는 현실로부터 철회한 박준은, 그의 소설을 통해 우리가 맺은 사회계약의 억압된 측면들을 극화함으로써, 주인의 자리를 점유하고 있는 권력의 권위, 큰 타자의 적실성을 의문에 부친다.

이 지점에서 G가 사로잡힌 ‘불안’의 감정에 대해 고찰할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정체를 알 수 없는 권력이 자신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데서 비롯되는 그런 감정이 아니다. 오히려 그의 불안은 “결여가 결여하게 되는” 감정¹⁷⁾, 즉 권력, 이데올로기, 대의, 소문 등 어떠한 외부적인 참조점에도 의존하지 않는 데서 오는 주체적 궁핍을 신호하는 감정이다. 그것은 G가 큰 타자의 결여를 떠맡았다는 것을 증거한다.

「소문의 벽」이 발표된 1970년대에 국가 권력에 의해 강력한 이념적 공세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G의 불안, 나아가 박준의 히스테리와 불안이 지니는 의의는 더욱 분명해진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적 장을 지탱하고 있는 담론들에 의존하지 않고 그것을 의심하면서 부정성과 함께 머무르려는 작가적 의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17) 알렌카 주판치치, 이성민 옮김, 『실재의 윤리』, b, 2004, 223면.

[Abstract]

Searching for the Origin of Power and
Subject's Anxiety
: A Study in the *The Walls of Rumor* by Lee
Cheong-Jun

Cho, So-myung(Sungkyu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way of interpellation of power and the response of the subject to it in Lee Chung-joon's *The Walls of Rumor*(1971). In standard reading, it is pointed out that the bearers of power, such as the flashlight and the interrogator, represent repression in that they force the protagonist, Park Jun, to choose a particular ideology and prevent him from making an honest statement, and the phobia of statements is the result of such repression. But this study first notices that the interpellation of power in the novel does not take place in a simple form that coerces what it wants. It is an obscure call to the subject that is not clear what the Other wants. Faced with this, Park Jun first infers and presents answers that meet the desires of others, but fails repeatedly. This leads to hysterical doubts about the justification and legitimacy of the power that called him. As other characters show, the subject usually tries to build fantasy in the way that 'the big Other wants this or that', and to take it as a standard for his actions. Yet in the case of Park Joon, he pushes his doubts to the extreme. He responds to the interpellation of power in a way that reveals the power and

its authority ultimately originate in illegal violence and extortion, and exposes the repressed scenes of the “Korean social contract.” As a result,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Lee Cheong-jun tried to speculate about the empty space of power by revealing that such power begins with an illegal origin in the 1960s.

Key words : the origin of power, anxiety, interpellation, fantasy, hysteria, social contract, forced choice

[참고문헌]

■기본자료

이청준, 「소문의 벽」, 『소문의 벽』(전집4권), 문학과지성사, 2011.

■단행본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김 현, 『문학과 유토피아』, 문학과지성사, 1993.

서영채, 『죄의식과 부끄러움』, 나무나무, 2017.

이수형, 『이청준과 교환의 서사』, 역락, 2013.

이재선, 『현대한국소설사 1945-1990』, 민음사, 1994.

Žižek, Slavoj,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다』, 박정수 옮김, 인간사랑, 2004.

_____,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 이성민 옮김, b, 2007.

_____, 『시차적 관점』, 김서영 옮김, 마티, 2014.

_____, 『전체주의가 어쨌다구?』, 한보희 옮김, 새물결, 2008.

_____, *Enjoy Your Symptom!*, Routledge, 2001.

Zupančič, Alenka, 『실재의 윤리』, 이성민 옮김, b, 2004.

■논문 및 기타 자료

강동호, 「전이의 소설학, 권력의 한 연구 -『씌어질 수 없는 자서전』과 『소문의 벽』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독해를 바탕으로」, 『한국문학의 연구』 제60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16, 355-401면.

김성경, 「반역의 상상력: 이청준의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의 저항성 연구」, 『상허학보』 제47집, 2016, 285-325면.

김영찬, 「1960년대 이청준 소설에서 ‘진실’의 존재론 - 「가수(假睡)」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50호, 2013, 347면.

김진석, 「짜패와 기생, 권력과 광기를 가로 지르며 소설은-「소문의 벽」, 「잃어버린 말을 찾아서」를 중심으로」, 『작가세계』 4(3), 작가세계, 1992, 81-107면.

성민엽, 「겹의 삶, 겹의 문학-후기 이청준에 대하여」, 권오룡 엮음,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1999, 149면.

송명진, 「이청준 소설의 이야기 권력 연구」, 『시학과 언어학』 제4집, 시학과언어학회,

2002, 195면.

우찬제, 「자유의 질서, 말의 꿈, 반성적 탐색-이청준의 소설론」, 권오룡 엮음,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1999, 202면.

이수형, 「1960~70년대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권력의 중층성 : 주권권력, 규율권력, 생명권력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64집, 민족문학사연구소, 2017, 471-497면.

이승준, 「이청준 소설에 대한 정신분석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